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금속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24.07.18
교섭
속보
VOL.9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7.18.(목)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지부집단교섭 6개 의제 전체 원안대로 의견접근 이제는 임금협상이다!



오늘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9차 지부집단교섭이 엠에스오토텍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위원들과 함께한 현장순회 이후 진행된 교섭은 사측 12명, 노측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섭자리를 마련한 엠에스오토텍' 김범준 대표이사의 인사 이후 모두발언에서 사측 교섭대표 디에스시오증석 상무는 “6월 20일 8차 교섭이후 교섭이 오랜만에 재개되었다. 지부 요구안 중 6개 중 4개 항이 의견 접근했고, 2개가 남았다. 오늘 최대한 합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노측 정진홍 지부장은 “사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교섭은 합의에 이르렀다. 최선을 다해 의견 일치에 이르도록 해보자”라고 답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1차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중앙표지자 검사는 계약된 병원 중 검사를 시행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있다. 각 사별로 여건에 맞게 협의하자는 의미다. 건강검진 실시 병원과 계약을 맺어야 함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해서 지회에서



운영하는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필요하다면, 회의록에 명기해서 통과했으면 한다”며 ‘제 69조 [건강진단] ⑩항’에 대한 의견과 “간병비 관련해서 간병비와 실비용 차액의 50%를 월 200만원 한도내 지원하는 것을 수정 제시한다. 회사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어 작은 규모의 회사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수정을 제안한다”며 ‘제 74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②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노측은 “종양표지자 검사에 관련해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업장마다 최소 5~8개 정도 검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7개 검사항목을 하자는 의미이다. 다만 항목은 각 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간병비 지원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개인의 이익문제라면 회사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삶 문제다. 이것을 재정적 부담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적용시점은 소급이 아니라 합의되면 합의 후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합의 전의 기간은 그 전의 노사 합의를 따르면 된다.”며, ‘제 74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②항’에 대한 수정제시안을 거부했다.

이에, 사측은 정회를 요청했고 10시 50분 속개된 교섭에서 사측이 ‘제 74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②항’을 원안수용하겠다고 밝히며 6개 요구안에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견접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노측은 이후의 임금협상은 발레오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